

시집적단지 200억 늘고 5·18 40주년 사업 40억 증액

■ 내년 국비예산 광주·전남 어떤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광주시는 정부안에서 누락된 사업을 신규반영하거나 증액함으로써 광주를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 육성하고,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전남의 경우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열악한 자치단체들의 재정형편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절실히 매달렸음에도 일부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아쉽다는 반응도 시·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광주, AI 산업육성·518 40주년 제대로**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국비 예산은 모두 2조5379억원으로 신규사업 94건(1968억원), 계속사업 192건(2조3411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신규 추가사업은 모두 22건(253억원)이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창업기업과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화된 창업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산업육성으로 민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 등으로 10억원이 반영됐다.

AI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하여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인재양성을 위해 국비 12억원이 반영됐다. 상생형일자리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총 10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노사상생의 사회통합형 새로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20억

국회 심의 과정서 22건 늘어

5·18관련자 실태조사 누락

전남, 신규사업 58건 예산확보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21억

남해안 관광개발 용역비 탈락

일자리 모델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과 지역 부품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부품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을 위해 10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심사에서 증액된 사업은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1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총 4061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내년도 예산에 1205억원을 요구해 정부안에 426억원만 반영됐으나 국회에서 2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2조1761억원 규모의 대형 SOC사업이다. 내년도 사업비 890억원을 요구해 정부예산안에 610억원만 반영됐지만 국회에서 220억원이 증액됐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한 순환 교통망 구축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완성을 위한 2호선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18 40주년 기념사업은 총 1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9억원을 요구해 정부 예산안에 25억원만 반영됐다. 국회에서 40억원이 늘어나 보다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5·18관련자 4415명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하려면 광주시 계획은 해당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다.

◇**전남, 미래 먹거리 키우고 경기 부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7조 1896억원(930건) 규모의 전남도 사업 58건이 올해 처음 신규 사업에 포함되면서 6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계속 사업이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했던 27건(4025억원)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했다.

당장,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사업의 경우 광양만권 일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절실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90억원 중 내년도 처음으로 21억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립심혈관센터 설치사업(총사업비 490억원)도 내년에 기본계획수립비(2억원)를 확보, 장성·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구축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농업 전문가들은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총 사업비 350억원)을 위한 예산(13억원)을 확보한 점도 기쁘게 환영하며 대응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데 의미 있는 성과로 분석했다.

전남도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린 정부 방침에 맞춰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비도 1조 2934억원을 확보, 공공투자를 늘려 부진한 경기를



52개 공직기관 출동...2019공직박람회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공직박람회'에서 공직지방생들이 참여 기관에서 체험을 하고 있다. '당신의 열정! 대한민국을 꽃 피웁시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공직박람회는 공직 지방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총 52개 기관이 참여했다.

부양하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대표적인 SOC 사업으로는 ▲남해안철도 전철화(40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1800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0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3752억) ▲순천 낙안-상사, 장성-전북도계, 광양 중군-진상, 영광 법성-홍농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 7건(391억) ▲보성별교-순천 주암 간 국도 27호선 확포장공사(300억) 등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한 사업들도 눈에 띄어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남해안·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총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180억), 초소형발사체 지원사업(294억),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지

원사업(180억), 태양광 발전 연계 수소 생산·수소전기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390억), 전남도 통일센터 건립(80억),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450억),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소 건립(468억),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480억) 등도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진표 총리직 고사...靑, 정세균 검증작업 착수

11일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굳어지는 듯했던 '김진표 총리 카드'의 경우 최근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이 불거지며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자신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대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측에 사실상 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반발이 핵심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은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문부 장관까지 역임한 정 전 의장이 집권 중반기 '경제총리'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정 전 의장이 국회의장을 거친 만큼 여야 협치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정 전 의장이 조만간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등 사실상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정 전 의장에 대한 검증에 시작할 경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결국 내주 혹은 연말까지 후임 총리 인선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293) 생의 시간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괴로움/외로움/그리움/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최승자 작 '내 청춘의 영원한'> 이 나이가 되어보니 교사, 공무원, 은행원이었던 주변 친구들이 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비껴서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여유가 부럽기도 하고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살짝 초조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반전

충실한 개·힘센 사자·영리한 여우로 살다

이라고 해야 할까. 본업을 떠난 친구들은 결국 다른 일을 찾아 다시 취업을 하고 창업도 하는 게 아닌가. 이번에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로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

어린 시절 어른들의 역할을 흉내 내며 했던 소꿉놀이를 강진 해남 등 남도에서는 '뺨곰살이' '산바꿈'이라 부른다. 삶을 바꿔 살아보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꾸어서 전혀 다른 삶을 설계하는 친구들의 '산바꿈'이 새로운 청춘의 도전으로 보인다.

과거를 되돌아보아봄으로써 추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신중하게 살아야한다는 암시를 담은 작품이 티치아노(1488-

1576)의 '시간의 흐름'(1550-1565년 경작)이다. 한때 서유럽의 모든 군주가 탐냈고, 그런 까닭에 국제적으로 활동한 최초의 화가로 꼽히는 티치아노는 생애 만년에 인생의 세 단계를 시간의 흐름을 통한 우의화로 그렸다.

소년의 모습을 충실한 개로, 중년의 남자를 힘센 사자로, 노년의 모습을 스스로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영리한 여우로 묘사해 인생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단계를 달리 설계해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대목인 것도 같다. 더불어 이 작품은 노년의 모습은 티치아노의 자화상으로, 중년은 아들의 모습이며 소년의 젊음은 손



티치아노 작 '시간의 흐름'

자를 그린 집단 초상화이기도 해서 3대에 걸친 가문을 성공적으로 꾸렸다는 티치아노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광주, 대안민중! 정의롭고 정오로운 광주 미래로!



- 저소득 저신용으로 대출이 힘든 분!**
-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분!**
- 사회복지 상담이 필요한 분!**

- 서민대출 상담**
 - ✓ 골목상권특례보증대출
 - ✓ 빚고을론
 - ✓ 햇살론
- 채무조정 상담**
 - ✓ 개인워크아웃
 - ✓ 프리워크아웃
 - ✓ 개인회생·파산
- 사회복지 상담**
 - ✓ 국민기초생활보장
 - ✓ 영구임대주택 지원
 -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 ▶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 ▶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며 선입금 요구!
- ▶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라며 안전계좌로 이체 요구!
- ▶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요구!